

“팔도강산 백수들의 먹고사니즘에 관하여” 토의 결과 보고서

2021년 8월
빠띠 믹스팀X니트생활자

1. 공론장 기획

작은공론장 “팔도강산 백수들의 먹고사니즘에 관하여”는 ‘사회적협동조합 빠띠’와 ‘사단법인 니트생활자’가 함께 기획하였습니다. 이 공론장은 ‘코로나19 시대를 극복하기 위한 시민사회단체 주도의 공론장 운영 및 온오프라인 커뮤니티 구축 지원’ 사업의 일환입니다.

사업 소개

사업명: 코로나19 시대를 극복하기 위한 시민사회단체 주도의 공론장 운영 및 온오프라인 커뮤니티 구축 지원

- 포스트코로나시대의 사회변화에 대응하여 시민 누구나 일상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제안과 토의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시민주도 디지털 공론장’을 활성화
- 디지털 공론장 플랫폼 ‘빠띠 믹스’를 활용하여 시민사회단체와 협업하여 다양한 시민사회주도 디지털 공론장의 구축, 기획 및 운영 지원
- 시민사회단체와 협업하여 시민들의 실시간 토의를 통해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는 공론장 행사인 ‘작은 공론장’을 개최
- ‘[민주주의 활동가 학교] 공론장 활동 과정’ 운영을 통해 시민사회 활동가의 디지털 공론장 활동 역량강화
- ‘코로나19 이후 사회 변화를 위한 시민사회 공론장 녹색’ (가칭) 발간

기획 주체

-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 사회적협동조합 빠띠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민주주의를 혁신하고 사회의 여러 영역으로 확산하는 민주주의 활동가들의 협동조합입니다. 빠띠는 일상에 민주주의를 혁신하고 확산시킵니다.

- **사단법인 니트생활자**

- 사단법인 니트생활자는 무업기간에도 안전한 사회를 위해 사회적 단절을 경험하는 청년들이 연결될 수 있는 커뮤니티 플랫폼을 만듭니다.

실시간 공론장 행사 “팔도강산 백수의 먹고사니즘에 관하여”는 디지털 공론장 플랫폼 ‘빠띠 믹스’를 활용하여 이루어졌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 빠띠의 믹스팀은 ‘믹스’를 구축하고 활성화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주도 디지털 공론장 플랫폼 ‘빠띠 믹스’

빠띠 믹스는 모두가 일상적으로 쉽게 숙의하는, 시민들이 주도하여 토의하고 공론을 형성하는 ‘시민주도 디지털 공론장 플랫폼’입니다.

시민주도 디지털 공론장 구축 배경

- 사회는 점점 더 빠르게 변해 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으로 더욱 촉진되고 인식되고 있지만, 그 이전부터 진행되고 있던 중요한 사회변화는 소위 디지털 전환입니다. 사회의 디지털 전환에 따라 비대면 상황에서의 일과 활동,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연결된 디지털 활동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 하지만 우리 주변의 대다수 플랫폼들을 자본이 소유하고 있어 시민들이 주도성을 발휘하고 참여하기 어렵습니다.

시민주도 디지털 공론장 구축 목표

-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이곳에서, 시민들이 직접 의제를 발굴하고 토의하여 공론을 형성할 수 있게 되리라 기대합니다.
- 빠띠 믹스는 ‘시민주도 디지털 공론장’을 확산함으로써 시민들의 충분히 대표되지 못하는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는 데 기여하여 더 나은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 시민주도 디지털 공론장은 ‘시민이 주도적으로 문제를 발굴하고 숙의로 대안을 도출하며 공론을 형성하는 디지털 공간’을 의미합니다. 이를 위해 빠띠 믹스가 안전하고 자유로운 토의를 통해 시민, 당사자, 전문가 등 참여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이 즐거움과 효능감을 느끼며 성장하고, 더 나은 사회로의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빠띠 믹스의 공론장은 시민의 제안과 공감, 숙의토론과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형성 된 공론을 사회적으로 이슈화하고, 공론화 하고 제도화하는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토의 내용은 저절로 축적되고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공개됩니다.

빠띠 믹스 공론장 프로세스

빠띠 믹스 공론장 프로세스



‘팔도강산 백수의 먹고사니즘에 관하여’ 공론장 기획의 취지와 목표

- 무업 기간에 있는 백수 청년, 혹은 ‘니트’라 불리는 청년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모으고자 함
- 먹고사니즘은 주로 생계를 위한 돈벌이와 관련되어 있으나, 백수 무업 청년에게도 인간으로서 먹고 사는 것은 중요함. 따라서 전국 각지의 무업 청년들이 무엇을 어떻게 먹고 살아가는지, 얼마나 비슷하며 또 어떻게 다르게 살아가는지, 그리고 또 어떤 쓸모 없지만 재미있는 일들을 하며 살아가는지 의견을 모아보고자 함
- 팔도강산 청년 백수들에게 니트 기간에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인지 같이 이야기 하고자 함

‘팔도강산 백수들의 먹고사니즘에 관하여’ 실시간 공론장 개요

- 행사명: “팔도강산 백수들의 먹고사니즘에 관하여”
- 일시: 2021.7.16(금) 15:00~17:00
- 장소: 화상회의(줌), 빠띠 믹스
- 주최주관 : 니트생활자 X 빠띠
- 후원: OSF

2. 일상의 공론장 빠띠 믹스 사전 논의

니트생활자는 ‘팔도강산 백수들의 먹고사니즘에 관하여’ 공론장 행사를 개최하기에 앞서 빠띠 믹스에 두 가지 투표 콘텐츠를 작성하여 올렸습니다. 아래는 질문과 투표 결과, 그리고 댓글 의견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투표1. “작고 소중한 내 가게부의 가장 큰 지출은?”

투표 결과

참여자 60명

- [주거비]내 몸 하나 누일 곳 🏠 15% (18표)
- [식대]밥심으로 산다 🍚 39% (47표)
- [교통비]집에만 있을 순 없어 🚗 12% (14표)
- [카페]카페 알바생이 친근해 ☕ 10% (12표)
- [쇼핑]금융치료가 필요해 💰 9% (11표)
- [취미생활]덕업일치를 꿈꾸며 🎮 8% (9표)
- [재테크투자]개미지만 뚝뚝 📈 3% (4표)
- [병원비]쉬는 이유 이거다 🏥 2% (2표)
- [구직비]돈을 버는데도 돈이 든다 📝 2% (2표)
- [기타]이런건 생각 못했지?하는게 있으면 클릭 1% (1표)

토의 내용

“줄이고 줄인 식비, 교통비만으로도 텅~장인데... 마음에 드는 것이 생기면...ㅠㅠ!”

“역시 밥하고 커피지요. 먹는 데 진심입니다. 식욕에 충실한 동물입니다...ㅠㅠ”

“당근마켓에서 옷 사고 귀요미들을 사는 게 좋아요”

“열심히 밥 먹고 아이돌 좋아하는 데에 온 에너지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맥북, 휴대폰 교체로 인한 카드값..으로 인하여.. 덕업일치에 한표...”

“약간의 음료값과 대부분의 자리값.... 커피맛은 신경쓰지 않습니다ㅎㅎㅎ”

“저는 주거비+공과금/ 교통비가 제일 많이 나가고, 그 다음에는 친구들과의 외식비! ... 거기서 더 나가면 요가학원처럼 운동을 하는데 가끔 무리하는 것 같아요. ㅎㅎㅎ 내 귀여운 월급에서 ㅠ.ㅠ”

“집에서 먹는 비용이 제일 많이 드네요. 제테크랑 취미생활이 1등이었으면 좋겠는데 현실은 일단 미천한 숨이라도 붙어 있으려니 라쿤 솜사탕 씹어먹듯 사라지는 내 월급... 그 허망함 ㅋㅋ”

“주거비.. 숨만 쉬고 있어도 돈이 나가네요..8ㅈ8”

“[기타]보험료! 아버님 미리 부양하기”

정리

무업 청년들의 가계부에서 가장 큰 지출은 47표(39%)로 식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위인 주거비(18표 15%), 3위인 교통비(14표 12%)보다 2배를 훌쩍 뛰어넘는 수치로서 일상적인 삶에 가장 중요한 지출이자 동시에 가장 큰 지출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거비와 교통비 또한 일반적으로 필수적인 생활 비용으로 여겨지는 것으로 식대와 더불어 삶에 있어서의 필수적인 지출임을 확연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외 눈여겨 볼만한 것은 카페 비용 10% 12표, 쇼핑 9% 11표, 취미 8% 9표입니다. 카페에서의 지출은 커피를 마시는 것이 한국사회의 일상으로 깊이 들어온 것을 반영하는 것일 수도 있으며, 카페가 집밖에서의 중요한 활동 공간이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고 혹은 그 두 가지 다일 수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쇼핑과 취미 역시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필수적인 지출임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댓글 토의에서 식비, 교통비, 외식비, 주거비의 표현, 당근마켓, 아이돌, 취미생활, 덕업일치, (카페) 자리값의 표현 등이 주로 등장하는 것에서도 일관성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무업청년들의 최소한의 지출 범위의 확인을 통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투표2. “24시간 다 내꺼! 나에게 중요한 하루 일과는?”

투표 결과

참여자 31명

- [집안일] 청소, 밥 🍴 차리기, 빨래하기 29% (9표)
- [과로] 뭐하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바쁘다. ... 🤖 19% (6표)
- [내공 쌓기] TV, 유튜브, 넷플릭스 감상_누워서. 📺 13% (4표)
- [자기계발] 글쓰기, 그림 🎨 그리기, 책읽기, 각종 취미활동 13% (4표)
- [돌봄] 🐶 생명체, 가족, 자연 🌅, 이웃, 나 10% (3표)
- [기타] 보기에는 없지만 “난 ____한다.” 10% (3표)
- [학습/취준] 각종 공부, 강의듣기, 이력서/자소서 3% (1표)
- [친교] 사람만나기, 커뮤니티 활동 3% (1표)
- [생계] 아르바이트 🧑 0% (0표)
- [심신 안정] 명상, 요가, 산책 🧘, 멍때리기 😴 0% (0표)
- [체력단련] 걷고, 뛰고, 🚴 타고, 운동가기 0% (0표)

토의 내용

“무업 초반에 하던 일이었지요. 리스트를 정하고 그것을 잘 하기 위한/잘 구매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하고 정리하고 공부했었지요.”

“하지만... 무업기간이 길어지니 결국 **잡다한 지식**이 많은 인간이 되어버렸을 뿐. ㅎㅎ”

“저는 쉬는 날도 그냥 바빠요... ㅎㅎ **책**도 보고, **청소**도 하고, **밥**도 해먹고, 바쁘더라고요.”

“일상이 삼시세끼... **밥** 때는 왜이렇게 빨리 돌아오는 걸까요? ㅠㅠ”

“**집안일**을 정말 해도해도 끝이 없어요 😞 뒤돌아서면 생기고,, 또 생기는 집안일..! 자취를 하다보니, 제가 하지 않으면 아무도 해주지 않기 때문에 더 바쁜 것 같아요 ㅜ_ㅜ”

“**집안일** 할 시간 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미뤄두게 돼요. ㅠㅠ”

“**유튜브** 보고있으면 시간 순삭.. 되네요 .. ㅎㅎ”

“**영상 편집**을 합니다 쿡쿡”

정리

무업청년들이 하루 일과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청소, 밥 준비 등 ‘집안일’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9표, 29%) 그 다음으로는 ‘뭔지 모르겠지만 바쁘다’(6표, 19%), [자기계발] 글쓰기, 그림그리기, 책읽기, 각종 취미활동(4표, 13%), [내공 쌓기] TV, 유튜브, 넷플릭스 감상(4표, 13%)으로 나타났습니다.

댓글에서는 수치에서보다 더, 집안일, 특히 밥먹기와 관련된 이야기가 주를 이뤘습니다. 그 외에는 ‘뭐하는지 모르겠지만 바쁘다’는 보기의 선택, 내공쌓기와 자기계발 보기의 선택이 많다는 점과 더불어 댓글을 살펴보면 시간을 떼우는 것, 취미생활을 하는 것, 그리고 다음 스텝을 준비하는 것이 쉽게 구분되지 않는 일상 활동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는 실시간 공론장 행사에서의 질문인 “돈벌이는 안돼서 쓸모 없다고 여겨질지 모르지만 재미있는 일, 나에게 의미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와 연결되어 있는 상황의 표현이라고 보입니다.

3. 팔도강산 토크쇼

테이블 토의 사전 ‘팔도강산 토크쇼’ 멤버 소개

- **조기 (제주도)** : 서울과 가까우면서도 먼 도시 제주에 살고 있음. 많은 사람들이 휴가나 여행으로 제주도로 방문함. 그래서 분주하고 활기찬 분위기를 고스란히 느끼면서 살지만 한편으로는 평화롭고 자연과 맞닿아 있어서 나에게 좀 더 집중하며 살 수 있음. 아직 제주도도 낯설고 백수도 낯설지만 제주에서 살면서 느낀 것들을 나누고 싶어서 참여했음.

- **문어빵 (전라 익산)** : 익산이라는 지명 자체를 처음 접한 분들도 계실 것임. 고즈넉히 보이겠지만 사실 삶은 바뻐. 백수라고 노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백수는 놀기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님. 이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 참여했음.
- **쌀나무 (강원 강릉)** : 강릉에서 살고 있음. 커피랑 바다가 유명해서 수도권 사시는 분들이 많이 놀러오셔서 친숙하실 듯 함. 하지만 저는 한적한 산이 있는 농촌 마을에 살고 있음. 거의 시골에 산다고 보시면 됨. 그곳에서 살아가는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아 참가함.
- **벤자민 (경기)** : 대한민국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 곳, 경기도에 살고 있음. 버스랑 지하철이 거미줄임. 아파트와 사람으로 가득찬 곳임. 그 곳의 대표 백수로 참가함.
- **포도 (경남 진주)** : 도시와 농촌이 결합되어 있는 경남 진주에서 왔음..
- **비누 (충북 충주)** : 서울이랑 멀지 않지만 소도시라서 애매한 점이 있음. 시골도, 도시도 아님. 있을 건 다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조용하고 한적한 심심한 곳임. 애매한 곳에서 살고 있어서 그런지 저도 애매함. 하는 일은 많지만 돈은 벌지 못하면서 살고 있음.
- **아풍 (서울)** : 서울에서 살고 있음. 원래 서울 사람은 아니지만 야심을 가지고 서울에 올라 왔음. 그런데 상경하자마자 코로나가 터져서 백수 기간이 연장되었음. 서울 주변부에서 본 서울과 지금 살고 있는 서울이 다른 느낌임. 적응이 안된 채로 살고 있음.

함경도를 포함하여 전국 팔도의 무업 청년들이 모여 이야기 나누는 자리를 만든다는 원래의 기획의도에서 출발한 이번 공론장은, 행사 당일에 함경도를 제외하고 ‘전국 7도’의 무업 청년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테이블 토의 전에, 7도의 대표 무업 청년들이 각 질문에 돌아가며 대답을 하는 토크쇼 형식으로 사전적인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심도 있는 토론을 의도하기보다는 전국 각자의 다양한 당사자 주체의 경험들을 다차원적으로 접하며, 더욱 깊이 자신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독려하기 위함입니다.

1. 여러분 잘 먹고 계신가요?

- **아풍(서울)** : 원래 **배달음식** 시켜먹음. 일인가구, 요리도 잘 못해서.. 자취 초창기에는 요리하려고 했지만 실패하고 식재료 상했음. 요즘은 반찬가게 이용 중, 돈이 많이 절약되고 있지만 **플라스틱으로 포장**해주기 때문에 이걸 처리하는 데에서 **자괴감** 듬.
- **비누(충청)** : 가족이랑 같이 사는 중. 매일 **엄마 밥**을 먹고 있음. 그래서 식비가 거의 안 들지만 그렇다고 아예 배달 음식을 안 먹는 건 아님. 서울에서 가깝다보니 한달에 한 번씩 친구들보러 **서울 올라가면 유명한 프랜차이즈 식당가서 먹느라 식비 많이 나감**. 충주 집 주변 이웃 분들이 농사를 지으셔서 사과, 상추 등등 소소하게 선물 받음.
- **포도(경상)** : **쌀은 텃밭**이나 주변분들이 주셔서 얻어 먹음. 과자같은 **공산품**은 근처 마트에 가서 사긴 하지만 자주는 안 먹고 시내 나갔을 때 왕창 사서 귀가함.
- **쌀나무(강원도)** : **건강하지만 단조롭고 심심하게** 먹고 있음. **부모님도 농사** 지으셔서 지은 것들로 먹고, 부모님이 해주신 음식으로 주로 먹음. 근데 단조로운 곳이라서 치킨 배달도 안되고 편의점도 없어서 공산품들을 먹을 기회가 없음. 그래서 **건강하지만 심심함**.
- **벤자민(경기도)** : 특별하진 않지만 **짬내**남. **부모님**과 같이 살아서 밥 같이 먹고, 혼자 나와서 **도서관**으로 향하지만 자리가 많이 없음. 그래서 자리 못 잡고 카페로 이동 후 **아이스티나 아메리카노 시켜서 작업**함. 그러면 이제 음료수값이 아까워서 가까운 편의점 가서 **삼각김밥** 하나 먹고 점심 떼우고, 작업하고, 다시 저녁식사하러 집으로 귀가.

- 문어빵(전라) : 부모님이랑 같이 사는 중. 두 분 다 **농작물 재배**가 취미여서 나물 같은 걸 많이 따오심. 그래서 월요일만 되면 나물반찬으로 식사함. 근데 상경하면서 배달음식이 너무 화려해서 마라상귀 시켜먹었다가 시험보러가서 배탈남. 식단이 조금 유해해져서 고민 중. 아무튼 **밭에서 난 걸 바로 먹으면 맛과 향이 다 좋음**. 서울 나물은 불만스러움.
- 조기(제주도) : **공산품이나 마트 물가가 육지보다 비싼 편**. 채소 과일도 종류 적고 신선하지 않음. 그래서 지역에 있는 **오일장에서 제철 식재료**들을 많이 사서 먹음. 그리고 당근 마켓 지역정보에 보면 채소, 작물들을 싸게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런 걸 사서 먹음. 또 제주도에서 굶은 돈주고 사먹는게 아니라서 **하우스 감귤** 같은 걸 주위에서 많이 **얻어서 먹고** 있음. 특이한 건, 바다로 나가서 직접 **문어나 물고기를 잡아서 먹기도 함**. 요즘은 문어가 철이라서 먹음. 관광지 물가가 비싸서 외식이나 배달 주문은 하지 않음.

비수도권 지역일수록 배달음식으로 먹기 보다는 직접 재배한 식재료나 마트에서 산 신선한 식재료로 직접 해먹는 경향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는 도시가 아날수록 시켜먹기 어려워지는 조건 때문이기도 하지만 식재료를 구하기 쉽거나 사먹기에는 물가가 높거나, 부모님과 함께 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뒤집어 말하면 도시일수록, 부모님과 떨어져 살 수록 직접 해먹기보다는 배달을 시켜먹거나 사먹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겠지요.

2. 어디에서 누구와 무엇을 하며 지내나요?

- 비누(충청) : 서울에서 자취를 했을 때보다 충주에서 더 **밖을 안 나감**. 원룸보다 넓어져서 그런 것도 있고, 충주 버스 배차 간격이 안 좋아서 자차 아니면 이동 어려움. 그래서 **행동반경 더 좁아짐**. 외출은 딱 두가지. 하나는 **취미로 하는 서예**를 하러 나갈 때, 나머지는 충주에서 **청년공동체를 운영** 중이라 청년들을 만나러 갈 때.
- 벤자민(경기) : 우선 **여기서 ‘누구’는 없음**. **백수 생활이 길어지면서 잔고를 생각했을 때 사람 만나는 일이 줄어듦**. 작가 지망생이라 글을 쓰거나 그림 그리기, 콘티 짜기 등 카페에서 혼자 작업할 때가 많음. 돈을 벌어서 **삼각김밥 생활 탈출**하기를 기원 중.
- 문어빵(전라) : **역시나 누구도 없음. 혼자 집에 있음**. 그림 그리기 선물하기, 알고리즘 파악하기, 책 읽기, 사진 찍기, 정리하기, 프로젝트 생각하기, 실험하기, 편지쓰기, 자격증 따기, 글쓰기 등등 집에서 다양한 일을 함. 자격증 접수해 놓고 공부하기 싫을 때 다른 일을 하고 있음.
- 조기(제주도) : 혼자 있을 때는 진짜 거의 그냥 집에서 **소파와 한몸**으로 지냄. 모든 생활은 **건강함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아침에 요가를 함. 집에만 있으면 무기력할 수도 있어서 서귀포 **도서관** 가서 시간을 좀 보내고, 1년 정도 밥을 주고 있는 **고양이들 만나러 만날 겸 산책** 겸 나감. **사람 만나면 낯시, 스노쿨링, 올레길 등반**을 주로 함.
- 쌀나무(강원도) : 3월부터 **지역에서 지원해주는 일자리에 참여**해서 시간을 쏟는 중. 하면서 규칙적인 생활을 기대했는데 막상 하니까 외근, 재택근무 때문에 생활패턴이 흔들리고 중심이 많이 흔들린다. 코로나 전에는 **카페, 도서관, 산책하며 사진찍기 등 혼자만의 시간보내기**를 했는데 지금은 코로나+출근 때문에 못함. 요즘 시작한 일은 **강릉으로 이주해서 사시는 그림 작가분의 교육을 신청**해서 나만의 이야기 그리기라는 주제로 일주일에 한 번씩 그림 수업을 듣는 중.
- 아풍(서울) : 주로 **혼자서 드라마 감상, 책 감상** 함. 요즘 들어서 혼자 보내는게 지겹고 지침. 이번주부터 **식기세척하는 알바**를 하고 있는데, 오후4~10시까지 하는 일이라 생활패턴이 뒤로 밀려나서 조금 피곤함. **집에 있거나 단기 알바**를 하면서 보냄.

- 포도(경상) : 집 안, 낮 시간대는 **취업 관련 공부**하고 **핸드폰, 요리, 집안일** 등등 조금씩 함.
저녁시간대에는 거실에서 **부모님과 티비 감상, 손 안마 해드리기. 집 밖에 나가면 친구 만나기, 면접, 동아리 부원 만나기** 등등 하면서 지냄.

무업청년들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듯이 사람들을 만나 교류하거나 함께 취미를 즐기기도 하고, 공동체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랜기간 무업청년으로 지내게 되면 비용 문제 등으로 인해 누군가와 함께 한다는 것이 쉽지 않아 혼자가 되어 고립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외식을 최소한으로 해야 하며, 밖으로 나가든 나가지 않든 취미, 자기계발, 작업, 취업 준비 등을 열심히 하지만 대체로 혼자 하게 됩니다. 고립으로 인한 무기력함을 극복하기 위해 밖으로 나가지만 도서관, 산책 등 혼자 할 수 있는 것, 비용이 들지 않거나 덜 드는 것으로 하게 됩니다. 생존을 위해 단기 알바를 하기도 하지만 미래에 대한 불안에 근본적인 해결은 되지 못합니다. 지역은 특히 교통편이 상대적으로 불편하여 밖에 나가기 보다는 집에 있도록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무업청년들의 일상적인 삶에서 지역간의 특수성이 강하게 나타나지는 않는 듯 합니다.

3. 돈벌이는 안돼서 쓸모 없다고 여겨질지 모르지만 재밌는 일, 가치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 문어빵(전라) : **만들고 실행**하는 걸 좋아함. 그래서 친구들 생일에 진심임. 한달 전부터 기획을 시작해서, 친구의 관심사나 태어난 계절을 분석하고 찾음. 근데 아무래도 **백수니까 예산을 잘 맞춰서 그림이나 편지를 써서 같이 전달**함. 택배를 이용하기 때문에 친구의 주소를 어떻게든 알아내서 몰래 선물함. 그럼 친구들이 너무 고마워함. 근데 한 번은 너무 퍼주는 것 같다는 말도 들었지만 그냥 이게 재밌고 좋아하는 친구에게 행복을 주고 싶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의미있는 일.
- 벤자민(경기) : 백수생활 전부터 **운동**을 즐겨함. 최근 코로나 사태 때문에 작년에 어머니랑 배드민턴 치고, 올해는 카페를 주로 가는데, 지하철 역 1개 정도 되는 거리인데 걸어서 왔다갔다 함. 걷고 배드민턴 치고, 어머니와 사이 돈독해지고, 이런 일들이 좋은 것 같음.
- 비누(충청) : 주로 **인터뷰를 기반한 콘텐츠 제작** 중. 총 세 가지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데 다 돈이 안들어옴. 남들은 도대체 왜 하나 하지만, 나도 나 스스로한테 함. **서울 친구들이랑은 소셜 분야의 잡지 제작, 충주시 청년공동체 활동으로 굿즈 제작, 청년 인터뷰, 개인적으로 뉴스레터 제작**과 같은 3가지 일을 진행 중임.
- 조기(제주도) : **고양이 밥주기**. 고양이가 점점 늘어나서 돈이 조금 듬. 제주도에 처음 왔을 때 아는 척 해준 애들이 고양이들이라 밥을 챙겨주고 있고, 만약 기상 악화로 못 가게 되면 이웃 할머니께 부탁함. 그리고 **바다 쓰레기 청소**. 바다 근처에 살다보니 자주 보여서 바다에 갈 때나 지날 때마다 쓰레기를 주워 옴.
- 포도(경상) : 하나는 **영화상영 동아리**, 나머지는 **경남 청년 네트워크 참여** 중. 취업과 연관성이 없다보니 주변인들은 왜 굳이 하나고 묻지만, 나는 **이것 자체가 재밌음**.
- 쌀나무(강원도) : 걷기. 걷는 걸 좋아하는 **친구와 낮에 만나서 걷는다**. 걸으면서 진솔한 얘기도 하고, 강릉에 대해서 많이 알게되고 또 관광도시화된 강릉을 이전의 모습과 비교하며 기록도 함. 밖에서 아이들, 할머니들, 주변인들의 대화를 들으면서 복잡한 생각을 많이 없앴. 또 하나는 **현책방에 감**. 지역에서만 발간되어서 그 지역에서만 순환되는 책들을 알게 되었는데 그런 **지역의 자료들을 이어 나가고 알릴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함.
- 아뽕(서울) : **연극 모임**. 요즘 **비대면으로 전환되거나 사라지는 활동들이 많음**. 이런 걸 기대하고 상경했는데 사라져서 좌절하던 차에 마을에서 연극 모임을 진행한다고 지원함. 참여자는 17명 정도

됨. 그 사람들과 연극 연습하면서 힘을 내고 있어서 **활동하기 잘했다** 생각함. 아마추어로 지내는 트라우마가 있었는데, 이를 내려놓게 된 계기가 되었음.

무업 청년들은 그림, 편지, 잡지, 굿즈, 뉴스레터 등, 자신들이 원하는 무언가를 만드는 일을 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돈벌이와 관련해서는 쓸모 없다고 여겨질지 모르지만, 당사자 개인에게는 재미있고 보람있고 의미와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고양이 밥주기, 바다 쓰레기 청소와 같은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일 또한 개인적인 가치와 연결됩니다. 이는 운동처럼 무업 청년들에게 활력이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무업청년들은 ‘임노동’을 하고 있지 않을 뿐, 여러 의미에서 가치 있는 ‘일’들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화 동아리, 연극 모임, 청년 거버넌스 모임에 참여하고, 친구들과도 만납니다. 수입이 없어 고립되는 경향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들과 관계를 형성하고 함께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활동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제약된 조건 내에서도 할 수 있는 한 하려 합니다.

4. 소모임 토의 결과

참여자들은 빠띠 믹스에서의 토의 결과와 발제자들의 논의를 함께 공유하고, 이를 토대로 소모임 토의를 시작하였습니다. 소모임 토의는 1조 서울, 2조 경기, 3조 서울/경기, 4조 전라, 5조 경상, 6조 충청/서울/경기, 7조 제주로 지역별로 이루어졌습니다. 퍼실리테이터는 모든 참가자를 환대하고 안전하고 자유롭게 토의를 할 수 있도록 독려하였습니다. 소모임 토의는 아래와 같은 질문에 함께 답하는 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 **[질문1] “여러분 잘 먹고 계신가요?” : 지역별 청년 혹은 청년니트의 식생활 모습**
 - 배달VS직접 요리 🥗 야식과 외식의 회수 🍗 혼밥? 가족? 🍷 한끼에 쓸 수 있는 비용 🍟 등
- **[질문2] “어디에서 누구랑 무엇을 하며 살고 있나요?”**
 - 지역별 청년 혹은 청년니트의 하루 일과
- **[질문3] “돈벌이는 안돼서 쓸모 없다고 여겨질지 모르지만 재미있는 일, 나에게 의미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 우리가 하는 것들은 정말 쓸모없는 걸까

질문에 대한 토의가 이루어진 후에는 “팔도강산 백수로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이렇게 필요해요!”라는 제안으로 빠띠 믹스 ‘[니트생활자] 팔도강산 백수들의 먹고사니즘에 관하여’ 그룹의 ‘제안’ 게시판의 게시물에 댓글로 각자의 제안들을 적었습니다. 각 소모임들의 토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모임 토의 내용 요약

소모임 1조 (서울)

- **[질문 1] “여러분, 잘 먹고 계신가요?”**
 - 편OO: 남편이랑 둘이 살고 있다. 백수도 아니고 직장인도 아니다. 프리랜서로 공연하고 있다. 설거지는 귀찮지만 매번 밥하는 게 귀찮다. **배달은 비용도 많이 나가고 쓰레기도 너무 많이**

나온다. 밥을 미리 해두고 냉동실에 소분해서 보관했다가 돌려 먹는다. 동네에 야채가 저렴한 스팟들이 있다. 남편이랑 나가서 장을 봐오는 편이다. 들어오자마자 소분해서 보관한다. 그래야 나눠 먹기가 편하다.

- 문00: 단기 알바하며 하루살이처럼 살고 있다. 가장 아낄 수 있는 것이 식비여서 컵라면 등 싼 음식으로 떼우고는 했다. 시간이 길어지니 **건강을 챙겨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 거창하지는 않더라도 요거트, 과일 등을 챙겨 먹는다. 배달은 잘 안시켜먹는데 조금씩 늘고 있기도 하다.
- 김00: 남편이랑 같이 살고 있다. 장을 볼 땐 SSG마트에서 배달시켜 요리보다는 조리에 가깝게 먹는다. 그다음에는 배달과 외식인데, 점점 줄이고 있다. 밥을 좋아한다. 해 두고 **소분해서** 끼니마다 전자렌지 돌려 먹는다. 남편은 일을 하는데 나는 쉬고 있어 밥을 열심히 하고 있다. 과일 배달 시켜 먹으려 한다. 잘먹고 잘 지낸다.
- 삭: 서울에서 자취한지 6-7년 정도 됐다. 식비에 돈이 제일 많이 나간다. 배달 음식 거의 안시켜 먹는다. **장을 직접 봐 와서 해먹는다.** 상시 구비 음식은 계란, 닭가슴살, 요거트이다. 요거트도 우유 사서 만들어 먹는다. **식비를 줄이기 위해서** 커피도 원두를 사서 내려 먹는다.
- 이00: 다이어트 도시락을 열심히 먹고 있다.

● [질문 2] “어디에서 누구랑 무엇을 하며 사시나요?”

- 문00: 전북 익산에서 살다가 취업하며 서울 올라온 것이 7년 째 됐다. 최근 3년 정도는 알바 생활이다. **거의 혼자 지내고 있다.** 다들 삶이 달라져서 **왕래가 없어졌다. 집에 주로 있고,** 전시회나 박물관을 다니는 등 혼자서라도 활동을 하고자 시도하고 있다. 단기 알바, 집, 밖에 나가기의 반복이다. 집에서 우울하게 무기력한 것이 35%, 나가는 게 15%, 아르바이트가 50%인 것 같다.
- 이00: 자취를 해서 **집안일**을 해야 한다. 집안일을 많이 한다. **도서관**을 다니며 60여권 이상 빌렸는데 제대로 읽은 것이 없다. 읽기보다는 빌리는 행위를 하는 것 같다. 동네 비건 베이글집이 있어서 베이글을 사와서 구워 먹는다. 팀원이랑 같이 공연 연습도 많이 한다. 음악을 하는데 앨범이 며칠 전에 나왔다. 공연이 취소 됐으니 영상이라도 많이 만들자고 기획을 하는 중이다.
- 편00: 집에만 있어서 더운지를 몰랐다. 어제 한 번 나갔었다. 교회에서 영상 편집 할 일이 있어서 **영상 편집**을 하며 지내고 있다. 예술계 쪽에 있는 **친구들을 집에 초대**해서 밥먹고 이야기를 나눈다. 아침에는 **줌으로 목상 모임**을 하기도 한다.
- 삭: 작년 2월까지 일하던 곳에서 퇴사를 한 후 계속 쉬고 있다. **번아웃**때문인지 아기의 삶을 살았다. 밥먹고 잠자고 똥싸고 하는 삶을 살았다. 이것저것 찾아보고 여러 방식으로 참여하고 있다. **혼자서 모든 것을 다 하는 편이다.**
- 김00: 사서 일을 했었다. 회의도 들고 번아웃이 왔다. 쉬고 있고 강의를 듣는 등 **진로 탐색중**이다. **모바일 게임**도 하고 **넷플릭스**로 **영화**도 본다. 주말에는 전시회나 영화를 보기도 한다. 월 1회 정도 구미 본가에 가기도 했다. 코로나로 인해 못간지 오래됐다.

● [질문 3] “돈벌이는 안돼서 쓸모 없다고 여겨질지 모르지만 재미있는 일, 가치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 문00: **필사**를 하고 있다. **문장 수집**하는 스타일이다. 책을 읽다가 마음에 드는 부분이 있으면 메모한다. 시간을 많이 들인다. 취업 준비를 하는 것도 아니고 공부를 하는 것도 아니고 요새 좋은 기능 내비두고 시간을 많이 들여야 하는 의문들도 있었다. **나 자신을 들여다보고 문장들을 마음에 새기고자** 하고 있다. 니트컴퍼니 카카오프로젝트100 참여한 것도 그 일환이었다. 지금 이 순간을 살게하는 활동이었다. **산책하기, 생각하기, 생각한 것 쓰기의 작업**이다.
- 김00: 가치있는 일이 뭔지 생각해봤다. **내가 했을 때 즐겁고 재미있는 일이 가치있는 일이다.** **다이어리 꾸미는 것을** 좋아한다. **좋아하는 문구들도 적어서 보기도 한다.** 그림 그리는 것도 좋아한다. 밑그림이 있고 색을 칠하면 그림이 완성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한다. 쉬다보니 **아무생각없이 하는 것도 가치있는 일**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있다.
- 삭: 사진을 찍고 있다. 아파트나 전봇대 등. **전공을 바꾸고 싶어 감각을 일깨우기 위해** 하는 일이다. **동네의 일상 풍경을 사진에 담는 것**이다.

- 편00: 맛있는 것을 먹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을 때가 있다. **마음에 우러나 올리고 싶을 때 네이버 블로그나 유튜브 영상으로 올리고 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다. 쌍문동 사이코 스시의 짬뽕탕이 맛있다. 도마가리 감자탕도 맛있다.
- 이00: **산책이나 메모를 많이 한다. ‘안하던 짓 실험실’을 하고 있다.** 안하던 짓을 안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어 안하던 짓을 해보고 있다. 네일을 받아보거나 양산을 사서 써보고 있다. 페트병 생수 시켜먹었는데 최근에는 브리타 정수기를 써 보고 있다. **나 자신의 행동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된다.**
- 아풍: **일상 속에 활기를 불어 넣고자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저도 그래야 하는데 잘 안하게 된다.
- 추가 논의: 무기력함을 깨뜨릴 수 있는 트리거는?
 - 이00: 3년 만난 남자친구랑 헤어지고 무기력했다. **하나둘셋 법칙**이 있다. 누워 핸드폰 보다가 일어나려면 ‘**하나둘셋**’ 외치며 일어나야 일어날 수 있다.
 - 편00: **몸을 밖으로 내보내야만 한다.** 우울하고 안좋은 생각에 망상에 소설까지 쓰게 된다.
 - 문00: 무기력하고 다운되면 방 안에 **조명을 밝게 켜**다. 에너지가 바뀌는 것 같다. **신나는 음악을** 일부러 듣는다. 좀더 에너지가 있을 때에는 **한 시간 이상 걷는 산책**을 한다. 그러면 감정이란 멀어지는 순간이 와서 좋아진다.
 - 김00: **감정과 생각들에 대해 일기를 써서 정리**를 하고나면 나아진다. 정리도 되고 앞으로의 해결책에 대해서도 쓰게 된다. 그리고 음악을 듣는데, 슬픈 것을 듣고 눈물을 쏟고, 잔잔한 음악을 듣고, 신나는 음악으로 나아간다. 그리고나서 신나는 음악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진다.
 - 아풍: 일종의 이론 같은 것이 있다. 외부의 적 만들기. 사람이 혼자 있다 보면 나를 공격하게 된다. 부정적인 생각도 하고 후회도 하게 된다. 예술인은 예술의 동력이 되기도 한다고 들었다, 스스로를 잡아먹는 느낌이다. 그래서 **외부 일정을 만든다. 단기 알바를 하던 프로젝트를 하던** 한다.

소모임 2조 (경기)

■ [질문 1] “여러분, 잘 먹고 계신가요?”

- 박00: 예전엔 잘 먹는게 맛있는 거였는데 요즘은 **건강하게** 먹는 게 중요함. 부모님과 거주, 부모님 장보기 리스트에 내가 먹고 싶은 걸 같이 구매. **농협마트에서 식자재**를 저렴하고 신선하게 이용하고 있음. **직접 요리**를 해 먹으려고 노력함
- 차차: 가족과 거주, **엄마밥**을 먹음, 예전에 7년간 혼자 서울에 살면서 **자취할때는 요리**해먹고 설거지까지 할 심적인 여유가 없었음. 대중 먹고 누워서 쉬자라고 생각함. **사먹고 시켜먹고 편의점 음식을 많이 먹으면서 건강이 나빠짐을 느낌.** 건강을 어떻게 하면 식재료에서 챙길 수 있을까 생각하는 단계. **냉장고가 빌런**이었음
- 최00: 가족과 거주, **엄마밥**, 자취 경험이 없음. 프렌차이점이 없어서 외식의 경우 동네 근처 슈퍼에서 재료 사서 **거의 요리**해먹음
- 정00: 부모님과 거주, 낙향함, 시골에 거주하여 농황작물이나 계란은 늘 있음, 할때는 제대로 하는데 너무 귀찮아서 계란만 먹는중. 하루 한끼만 먹었는데 요즘은 힘들어서 좀 더 챙겨먹으려 함. 작은 마트가 하나 있어 간식거리를 사오거나 진짜 해먹고 싶은게 있으면 저멀리 시내 이마트에서 배달을 시켜서(두달에 한번) 해먹음
- 김00: 자취경력이 오래됨. 둘이 살고 있어 1년반정도 무업기간 중인데 **2인분을 만드는게 쉽지 않음.**
- 벤자민: 같은 경기도라도 차이가 많이남을 느낌. **삼각김밥** 먹는 게 나밖에 없음 잘 못먹고 있는거 같음.

● [질문 2] “어디에서 누구랑 무엇을 하며 사시나요?”

- 최00: 집에 주로 있음. 초등학교 동생 학교 배웅하고 놀아주다가 **걷기**하고 씻고 밀렸던 **집안일**을 하고 저녁엔 가족들과 시간을 보냄

- 차차 : 코로나 전에는 **알바**를 하며 **술먹고 친구만나고** 했지만 코로나 이후 알바도 힘들어지며 친구들도 **온라인**으로만 만나게 되었음. **자전거**에 취미를 붙여서 아침에 일어나면 일찍 또는 밤에 자전거 타고 낮잠자거나 **자소서** 쓰거나 **면접 준비**하거나 하면서 시간을 보냄
- 박OO : 조용한걸 좋아하지만 코로나 이후 가족들과 살면서 시끄러워서 평일 오전이나 낮에는 가족들이 없어서 좋아하고 있음. 주로 오전에 **절**을 하고 있음. 산에 가서 꽃냄새를 맡으며 속세를 벗어난 삶을 살다가 오후에는 **집안일**을 함
- 김OO : 아침에 가족 출근 준비 돕고 근처 **산책, 운동**을 하기도 하고 점심을 나가서 먹기도 함. **책방**가서 **코딩**관련 일을 하고 대화도 하고 4시30분정도에 집에 와서 저녁먹고 **고양이랑 논다**.
- 정OO : 코로나로 나가는 횟수가 줄어서 계속 집에 있음. **공부**를 하는게 있어서 토요일은 외출을 함. 부모님 일가시면 혼자서 이것저것 하고 **누워있고** 함

● [질문 3] “돈벌이는 안돼서 쓸모 없다고 여겨질지 모르지만 재미있는 일, 가치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 차차 : **글쓰는걸** 좋아함. 그림을 그리자니 음악을 하자니 다 돈이 들어서 글을 쓰고 있음. **생각 정리**에 도움이 되고 **스트레스가 풀리는** 것 같음. 글을써서 돈을 벌어본적이 있음. **자전거** 타는걸 너무 좋아해서 엉덩이가 아플정도로 자전거를 타고 있음. 예전에 회사를 다니거나 돈을 벌때는 우울증이 왔었는데 한달에 통장에 찍히는 만큼만 내 가치가 느껴졌음. 백수라 수입이 0원이니 그만큼의 가치의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무업기간 내가 좋아하는걸 시작하다보니 돈을 안벌어도 내가 괜찮은 사람이란걸 알게되었음
- 김OO : 책학교에서 **코딩**을 배웠는데 책방 사장님을 도울려고 어떻게 도움되는지 고민하고 있음 포스기가 비싸서 못쓰시는데 그런 문제를 해결해주고 싶어서 책방에 가고 있음
- 박OO : 산에 가면 **쓰레기** 버리고 가는 사람들이 많거나 파손되어 있는게 맘이 아파서 그런걸 **사진찍어 국민안전신문고에 신고**하고 하는 일을 함
- 정OO : 손이짧은 사람임. **컬러링 책** 함. 최근 **전시**를 했는데 그 전시를 하면서 너무 좋은 경험이 되었음. 해냈다는 경험을 하게 되어서 인상깊은 활동이었음. 그래서 그거에 힘입어서 시리아 난민들을 위해 **굿즈를 제작**하려고 준비중에 있음
- 최OO : **일본어를 공부**하면서 다른나라의 문화를 익혀나가는게 재밌다는 걸 알게되었음

소모임 3조 (서울/경기)

● [질문 1] “여러분, 잘 먹고 계신가요?”

- 경기 큐 : 서울에서 7년을 살다 수원으로 이주, 서울에서 있을 때는 잘 못먹고 살았음. **편의점 음식, 배달음식**, 프리랜서로 일할때 일하면서 저녁까지 해결하고 집에가고 했는데. 수원에 오고 먹는게 더 건강해졌음. 하루 2끼정도 점심, 저녁을 먹는데. **요리**를 주로 하고, **한살림**에서 장을 보기도 함. 옥상에서 어린잎을 키워서 **직접 씨 뿌려 재배한 식자재**를 먹고 있음. 서울에서 식생활 때문에 몸이 많이 망가지는 것 같아서 **건강**하게 먹으려고 노력하고 있음.
- 쌀나무 : 혼자 살때는 **자극적인 음식**을 많이 먹었는데 **시골**에서 사니까 **속이 많이 편해**졌음. 심심한 점이 있고, 밤에 음식이 땡기거나 할 때가 있는데. 치킨 배달도 되지 않는 곳에 살고 있음. 성인이 되고 도시 생활을 했기때문에 외식이나 배달 문화 보다는 **집에서 먹는게 더 친숙**하긴 함.
- 서울 영O : 집에서 음식 냄새 나는 걸 좋아하지 않아서 정말 간단히만 먹고 있음. **바나나, 요거트**, 믹서기로 **주스**를 만들어먹거나. **친구들을 만나면 외식**을 주로 하게 됨. 일할 때는 식사를 다 하고 오니까 해결이 되었는데, 쉬니까 집에서 해결해야하는데 냄새가 나는게 싫어서 정말 **간단하게 원푸드**로 해결
- 채O : 집에 혼자 있는 편인데 부모님과 함께 생활 중이라 **해주는 밥**을 먹고 있음. 일할 때도 점심에 **도시락**을 싸서 먹을 정도로 외식을 좋아하지 않았음. 손목이 아파서 요리를 하기는 어렵고 엄마가 해주는 밥을 먹고 있음.

- 경기 정O : 2년정도 무업 기간. 혼자 살고 있는 중이라. **배달이** 주가 되고, 간단한 요리를 가끔하는 정도. 회사 다닐 때는 식비 나오는 걸로 먹고 가리는게 없어서 건강을 희망하지만 혼자서는 지키기가 어려워서 지킬 수가 없음.

● [질문 2] “어디에서 누구랑 무엇을 하며 사시나요?”

- 경기 큐 : 집에서 주로 시간을 보냄. **글쓰고 작업**하다가 밖에는 6시 이후에 나가곤 함. 주중에는 수원에 사는 친구가 별로 없어서 주로 **조깅이나 명상**을 하고 있음. 조깅을 주에 2,3 회, 명상은 매일 하고 있음. 몸 건강을 위해 수원에 와있는데 몸 뿐만 아니라 정신, **마음의 건강**도 유지를 해야하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 노력 중. 1년에 오십명 정도 반년에 한번씩 만나게 되는 것 같음. 인근 **카페에 단골**로 다니는데 그곳 사장님 부부와 친해져서 거기 자주 가곤 함.
- 서울 영O : 2달 정도 무업 기간. 아직 **거의 매일 약속**이 있고, 밀린 친구들을 만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중. 집에서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편인데 아직은 여유있는 생활을 즐기기 위해서 바쁘게 지내고 있음. 한달만 쉬고 바로 일을 할 계획이었는데 경제적인 현실 때문에 다시 일을 하기 위해 **이력서**를 쓰려고 함.
- 서울 채O : 원지 1년 반 정도. 손목이 아파서 쉬는데 **늦잠**자고 일어나면 **재활치료**하고 점심먹고, 말하고 보고 걷고 정도의 활동을 할 수 있는 상황. **음성 명령으로 유튜브 영상 편집**하는 걸 하고 있음.
- 경기 정O : **성소수자인권운동**을 하고 있음

● [질문 3] “돈벌이는 안돼서 쓸모 없다고 여겨질지 모르지만 재미있는 일, 가치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 서울 영O : 꾸준히 하는게 없어서 **블로그에 일상을 정리해서 기록**을 하고 있음. **사람들에게 정보를 공유**해주는게 보람되고 의미있다고 생각함.
- 서울 채O : **유튜브**로 혼자 열심히 찍어서 올리고 있는 중. 등산을 하다가 다리를 삐었는데 너무 심심해서 **영상 편집**을 시작하게 되었음. 너무 할게 없어서 시작하게 되었음. 유튜브 구독자가 지인 뿐이지만 영상을 올리면 지인들이 피드백 해주면 그게 힘이 되기도 해서 계속 하고 있음.
- 경기 정O : 2년동안 여러가지 **자격증을 취득**하면서 **공부**를 했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을 공유**하고, 다른 단계에 있는 분들에게 QnA나 노하우를 알려주면 그게 즐거움
- 경기 큐 : 수원에 내려와서 **청년 모임**이 어려운 곳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수원 청정넷**에 참여하고 있음. 정치에 관심이 많고 **데이터와 저널리즘**을 공부해서 **청년 정책을 만드는 거버넌스 활동**이 돈벌이는 안되지만 재밌고 변화를 만들고 싶어서 지속 하고 있음.
- 쌀나무 : **걸으면서** 동네를 새롭게 보고 **기록**하면 도시가 바뀌는 모습을 확인 할 수 있음. **아카이빙 강좌**를 들으면서 일상에 기록들이 생각보다 나중에 찾으려도 해도 찾기 어려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의미를 찾게 되었음.

소모임 4조 (전라)

● [질문 1] “여러분, 잘 먹고 계신가요?”

- 승O : 갑자기 식당과의 분쟁이 생겨서 기숙사 식당 밥이 안 나옴. 누군가 차려주고 챙겨주는 **집밥이 그리움**
- 아O : **1인 가구**이기 때문에 **대부분 사먹지만** 해먹고 싶기도 하다. 회사 퇴근하고 해결하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음.
- 자O : 백수 두 달차. 시간제여서 여유가 있었지만 **일할 때는 주로 외식**. 일을 쉬는 지금은 아침은 간단히 만들어서. 최대한 가까운 곳에서 **점심은 사먹음. 저녁은 짬뽕과 만들어서 먹음.**

● [질문 2] “어디에서 누구랑 무엇을 하며 사시나요?”

- 아O : 대부분의 시간을 **회사**에서 보내고 야근도 많음. 회사 사람과의 접촉이 제일 많음. **지역 친구들과 이것저것** 함께 해보려고 시도하고 있음. **청년 거점 공간인 동네 책방**에서 밥도 먹고

춤도 추고 함. 대구에서 완주 온지 3년차. 깊이 않지만 **유대**를 할 수 있는 공간에서 **일상도 공유**하며 지냄.

- 승O: 필수 과목을 계절학기에 듣고 있음. 규칙적인 생활하려고 1교시 9시로 잡았음. 교수님도 열정적이라 다른 전공의 사람들과 이야기도 하고 영어로 발표하는 스킬도 배웠음. 룸메랑 뭐 먹을지 알고리즘으로 정하고 지냄. 다른 자유시간에는 **덕질**. **토익 시험 준비**를 함
- 자O: 니트 시작 후 나태해지지 않기 위해 **실업급여**를 받으며 뭐라도 하려고 함. 9to6에 무언가 끼워 넣음. **서점**에도 가고 점심도 먹고 3시까지 카페에 가서 **글쓰기**를 함. 저녁 시간 전까지 **온/오프라인 수업** 들음.(작문, 웹툰, 비평 등) 지역 친구들과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활동**을 하고자 함. 공통된 대외 시간인 저녁에 함. 학교 졸업 후 제대로 쓴 적이 없었음. 지금 하고 있는 **돈 안 되는 일**은 지속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해서 고민이 됨. **지역 커뮤니티 내에서 계속 활동**하고 싶기 때문.

● [질문 3] “돈벌이는 안돼서 쓸모 없다고 여겨질지 모르지만 재미있는 일, 가치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 아O: **청년정책**을 만드는 활동을 하고 있음. 고향에 있을 때는 퇴근 후에 일을 생각한 적 없고 하기 싫었음. 지금은 **또래들 만나고** 어떻게 업무로 잘 풀어갈 수 있을지 고민하고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라서 그런지 일의 연장선으로 하고 있는 느낌임. 일 중독인가 싶기도 한데, **좋아서 재밌게** 하고 있음.
- 승O: 연예인 친구들이 노력하고 열정적으로 사는 모습 보면서 임파워링. 오히려 돈을 쓰는 일인데 **독서나 연예/예술 등 문화 생활** 하면서 내 삶에 도움 되고 얻어갈 수 있는 부분에 집중하면서 감상하고 있음.
- 자O: **책 모임**을 만들거나 가입하는 일을 반복하고 있음. 참가자가 아닌 **운영자**일 때의 결정 사항이나 **책임감** 때문에 **부담**도 되지만 재밌어서 삶을 꾸려 가는 데에 있어서 충분한 동력을 얻는다. 사람과의 만남과 대화 등을 이어가는 장으로서 잘 활용하고 있음.

소모임 5조 (경상)

● [질문 1] “여러분, 잘 먹고 계신가요?”

- 이쁘로로: 현재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어, 엄마 퇴근 후 저녁을 함께 먹고 있다. 백수기간이 길어질수록 소비가 부담돼서 장보는 회수가 점점 줄어들게 된다. **마트 마감세일**을 노려서 **반조리 제품**을 노린다.
가장 만족스러운 마감세일품목은? - 이마트 팔보채
- 이OO: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다. 규칙적으로 하는 일이 없어서 밤낮이 바뀌어 **저녁 한끼나 점심에 빵 같은 걸로 대충** 때우게 된다.
- 김OO: 밥먹는 걸 얘기하는 것은 처음이다.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어 아침엔 가족들과 함께 먹고, 함께 일하는 분들과 점심을 먹는다. 저녁에는 대부분 친구들과는 밖에서 **사먹는다**. 2/3를 외식이라 소비가 많다. 그래서 되도록 집에서 먹으려고 하고 있다.
- 이쁘로로: 아침을 꼭 챙겨먹는다. 가장 간단하게 먹는다. **밀반찬과 계란후라이, 간장계란밥**이라도 꼭 먹는다. 그 다음 식사에서 과식을 하지 않게 된다. 처음에는 불편할 수도 있지만 아침을 먹으면 든든하기 때문에 주변 분들에게 추천을 하게 된다.
- 이OO: 늦게 일어나서 아침식사가 점심식사가 된다. **아침**을 가끔 먹어도 배가 아파서 잘 안 먹는 습관이 생겼다.
- 김OO: 계약직으로 일을 시작해서 아침을 먹는다. 평상시에 일을 안할 때도 아침밥을 챙겨 먹었다. 아침에 부모님이 출근하실 때 깨워주시고 아침을 먹어와서 안 먹는 사람이 신기하다. 아침 추천메뉴는? 어머니의 김치, 김치찌개, 된장찌개 등 **집밥**이 최고!
- 포도: 사실 아침을 안 먹는 편이다. 일을 하거나 아침에 나갈 일 있으면 **포도당 캔디**를 먹는다.

● [질문 2] “어디에서 누구랑 무엇을 하며 사시나요?”

- 김OO: **취업 준비**를 함. 아침에는 **시험공부나 면접 준비**를 하고 **잡코리아**를 서치 함. 주말에는 놀고싶어서 **축구**를 함. 여자친구랑 놀러가거나 맛있는거 먹으로 가거나 하기도 함. **카페**를 가거나 집에 잘 있는 편임.
- 이OO: 한 학기 남기는 했는데. 손으로 똥을 싸고 있다 고 하는데 **글 쓰는 거** 좋아해서 쓰고 **아이패드** 좋아해서 **그림**도 그리고. 독립출판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대부분 혼자 카페에서 아메리카노도 수혈을 하면서. 친구랑 놀때는 포항에 있는 친구가 있을 때 **해수욕장**에 감. 영일대해수욕장이 있어요 듯자리 펴놓고 **자전거**도 타고, 트월킹 **춤**도 추고 했음. 친구가 10만 유튜버임.
- 이뽀로로: 헤람님 친구분이 10만 유튜버 라고 하셨는데, 저는 900명 유튜버임. **퇴사하고 유튜버 한다는 계획**이 있었음. 소소하게 하는 것들을 찍어서 올리고는 함. 하지만 점점 안 하게 되고 있음. 보는 사람이 없음. 무업상태가 되고 **영상 편집 기술**을 배웠음. **돈이 되지는 않지만 배우는 것을 다양하게** 했음. 오늘 같은 자리에,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고 대화**하기 위해 참여한 것임. 1년 7개월 간 새로운 것에 많이 도전함. 예를 들면, 날것을 잘 못 먹는데 육회 먹기에 도전한다거나, 새로운 동네에 가 본다거나 하고 있음 **새로운 도전을 다양하게** 시도하고 있는 중임. 유튜버 도 그 중 하나.
- 포도: 저도 **영상**을 찍는다고는 찍었는데, 편집하고 만들지는 않았음. 영상을 찍고 편집해서 만들어 올리는 게 대단하다고 생각함. 많이 **배우려고 한다는** 말씀이 공감됨. 백수생활을 하면서는 뭐라도 배워야 시간을 그나마 의미있게 쓸 수 있다고 생각함. **청각장애인 자막해설 과정 온라인 수업**을 듣고 있음. **온라인으로 잘 찾아보면 배움의 기회**들이 있음.
- 이OO: **에어비앤비**를 시작했었음. 작은 빈 집이 있었음. **인테리어, 마케팅, CS**를 다 해보는 경험이었음. 개인 사정으로 현재는 멈춘 상황. 현재 **소송, 재판 진행중**. 재판 중에 배우는 게 많음. 우리나라가 갈 길이 멀었다고 느끼기도 함.
- 김OO: **아마존**에서 **글로벌 셀러**로 **교육**을 받아봤는데 생각보다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이었음. 거기서 만난 사업하시는 분들의 앞서나가는 생각을 보면서 배울 점이 많았다.

● [질문 3] “돈벌이는 안돼서 쓸모 없다고 여겨질지 모르지만 재미있는 일, 가치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 이OO: 향후 **텀블벅으로 출판**을 **계획중**이기 때문에 레퍼런스를 많이 보고 있음. **인기 인스타그램**과 아닌 곳을 비교해보면서 인기 **비결**을 **분석**해보고 있다. 그림을 그리는 것 뿐만 아니라 부수적인 작업까지 해보고 있음.
- 김OO: 취미 생활, **축구**를 하는데, 시간과 돈이 들어감. **친구들과 함께하는 행복**이 주어지긴 하지만 돈이 많이 들어감. 초기 장비 비용 같은 것은 축구화만 있어도 가능하기 때문에 저렴한데 요새는 구장을 빌려야 해서 두시간에 적게는 10만원, 많게는 30만원이 들기 때문에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고 있음.
- 이뽀로로: **봉사활동**을 최근에 시작했다. 봉사 시간이 필요해서 참여하는 것이 아님. 취업에 연결되지 않고 돈을 벌 수 있는 활동도 아니기에 주변에서는 이런 저런 말씀을 하시지만 개인적으로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되어 **아름다운가게**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처음에는 실수를 할까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지만, 봉사하는 시간만큼을 기부하고 있다고 생각하니 뿌듯해졌음.
- 포도: **사진** 찍는 것에 관심이 많아졌음. 옛날 느낌나는 레트로 풍의 예쁜 진주의 건물들을 사진으로 기록하는 느낌임. 재미있게 진주의 건물들의 사진을 찍고 있음.

소모임 6조 (충청/서울/경기)

● [질문 1] “여러분, 잘 먹고 계신가요?”

- 비누: 어제 뭘 먹었는지 기억이 안 난다. 어제 점심에 라면과 치즈볼을 먹었다. 주로 엄마 집밥을 먹고 있기는 하지만 **인스턴트 음식**도 먹는다. **바라는 식단은 건강한 식단**이지만, 혼자 있거나 **바쁠 때는 인스턴트**를 먹는다. **텃밭**을 가꾸는데, **텃밭에서 상추를 길러 삼겹살**을 먹기도 한다.

- 정00: **아침은 주로 콘푸로스트와 과일이다. 점심은 어머니와 단들이 먹는다. 간장 비빔국수를 먹은 적이 있는데 그게 맛있어서 최근에도 해먹었다. 요즘 밀키트가 유행한다. 그런 것들을 먹어보면 좋을 것 같아서 먹어봤는데 괜찮았다. 추구하는 식단은 어머니의 집밥이다.** 현재 어머니의 건강 등의 이유로 스스로 요리를 하는 일이 많다. 요리를 하며 어머니가 장보고 설거지하고 요리하는 걸 어떻게 혼자서 다 했을까 싶다. 그리고 **건강한 식단을 추구한다. 자극적인 식단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다.**
- 황00: **어제는 단호박을 구워 먹었다. 그리고 유기농 채소를 정기 배송을 받고 있다.** 원하는 채소가 아니라도 왔으니까 먹는 경우가 많다. **작년부터 비건을 하고 있다. 사서 먹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 요리를 많이 하게 된다. 최근 <아무튼 떡볶이>라는 책을 읽었다. 떡볶이가 먹고 싶어서 찾아봤는데 비건 떡볶이는 집 주변이 아닌 이대 쪽에 있다. 코로나19 때문에 걱정되지만 혼자 갔다와볼까 하는 생각이 든다. 요리는 별로 안 좋아해서 생존하듯이 먹고 있다. 이따가는 채식 라면에 브로콜리를 넣어서 먹을 예정이다.
- 지지: **어제는 목살이랑 양파랑 마늘을 구워서 밥과 먹었다. 원하는 식사는 간편하게 서양식으로 빵, 우유, 베이컨 등 간단하게 먹는 것이다.** 그런데 국내 유제품의 **가격이 비싸서 자주 못 먹는다.** 샐러드도 먹고 싶은데 채소 손질에 손이 많이 간다. 바빠서 잘 못 먹고 있다. 주로 빨리 해먹을 수 있는 된장찌개 등 한식을 자주 먹는다.
- 주00: 저는 오늘 아점으로 **햇반**을 먹었다. 그리고 어제는 **떡볶이**를 직접 해먹었다.

● [질문 2] “어디에서 누구랑 무엇을 하며 사시나요?”

- 비누: **지역 청년 단체에서 하는 인터뷰**로 근처 빵집 사장님을 인터뷰 했다. 평소에도 좋아했었던 분이다. 평소의 가치관도 궁금했던 터라 재미있게 할 수 있었다.
- 정00: **5월까지 일을 하다가 퇴사**를 하고 쉬고 있는 상태이다. 급하게 이직을 하고 강박관념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보다 **무엇을 하고 싶은지,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등 이것저것 도전**을 해왔다. **소셜벤처** 공모전에 공모를 했다. 요즘은 **동네 협력 커뮤니티**를 꾸리고 있다. 최근 누군가와 시간을 보낸 건, 아까 이야기한 카페에서 **인터뷰**를 했다. **인터뷰를 하는 목적은, 눈에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궁금해서, 어떤 일을 하는지, 그 사람의 좋았던, 힘들었던 순간을 알고자 하는 것이다.** 귀를 기울이는 인터뷰를 하고 싶다. 스스로도 무언가를 느끼고 있고, 인터뷰이들도 감동을 느끼고 계신 것 같다.
- 황00: 지난 주 토요일에 **청년 커뮤니티에서 지원사업을 따기 위해서 대면심사 발표**를 하고 왔다. 다음주 월요일에 결과가 나오는데 **될 것 같다.** 안 되면 그만이다. 요즘은 코로나19가 악화되어 밖에 잘 못 나간다. 막상 밖에 나가면 사람들은 있다. 나가고 싶은 욕구가 생겨서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겠다.
- 지지: **요즘 백수**라서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보낸다. 백수 기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불안해서 책을 보면서 달래고 있다. **최근에 만난 사람은 니트 컴퍼니에서 알게 된 분과 만나서 취업하려는 회사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림을 잘 그리는 분이어서 **같이 그림을 그리기도 했다.** 저녁에는 마라샹궈를 먹었다. 취미로 그림을 그린다.
- 주00: **1인가구에 관심이 많은 청년들과 이야기하며, 1인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전시를 대전에서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연애**를 시작해서 **데이트**를 주1회 정도 하는 것 같다.

● [질문 3] “돈벌이는 안돼서 쓸모 없다고 여겨질지 모르지만 재미있는 일, 가치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 비누: 콘텐츠를 준비하면서 힘들기는 힘든데 시야가 넓어진다. **사람들이 궁금하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다보면 경험해보지 못한 경험, 활동 등을 느낄 수 있다.** 이런 활동이 있구나 생각한다. **인터뷰 원고를 준비할 때는 신경 쓸 것이 많고** 여러 콘텐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렵다.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게 의미가 있는 것 같다.
- 정00: 퇴사를 하고 나서 **여러가지 삶에 대한 상상**을 하게 되었다. **10년 이상을 노력하고 바라봤던 곳에 입사**를 했는데, **그 과정이 행복하지 않았고 건강도 나빠졌다.** 조금의 용기를 내서 빨리 퇴사를 하고 일종의 프리랜서 선언을 했다. 인터뷰 등 프로젝트는 **이 사회에서 할 수 있는 것, 사회에서 청년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이 뭘까하는 질문에서 시작한 것이다.** 내가 말하고 있는 걸 누군가가 기억해준다면 점점 확장되어 **사회가 변하지 않을까** 하는 신념으로

하고 있다. 과정은 어렵고 힘들다. **글이 갖는 힘이 있기 때문에 언어, 단어, 폰트, 픽셀 등 신경쓸게 많다.** 주변에서 끈기있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 공상가라서 여러 상상을 하고 시도하긴 하지만 꾸준하지는 않는다. 주변에서 지지해주기 때문에 이어갈 수 있다.

- 황OO: **재미있어서 하는 것들이 있다.** 청년 커뮤니티는 청년 주거 공동체에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주제에 대한 디자인, sns 관리 등 자발적으로 하고 싶은 형태로 활동을 한다. **자발적이다보니 하고 싶은 것을 하고, 그래서 자기만족을 하기도 한다.**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등에서 정책 지원을 하는 일을 한다. 커뮤니티 활동으로도 할 수 있는 일을 **정책적으로 바꾼다는 점이 의무적으로 다가와서** 한다. 할 수 있는 커뮤니티 활동을 지속하고 싶다. **재미가 중요하다.**
- 지지: 대단한 걸 하고 있지는 않다. 최근에 글을 쓰는 횟수가 적어졌다. 다시 취업 준비를 하려고 **자기소개서를 쓰려는데 꽤 어렵다.** 나아지기 위해 **필사**를 하고 있다. 인터넷에서 찾은 좋은 글을 필사하는 데 재밌다.
- 주OO: 아직 가족이랑 같이 살고 있고, 돈을 모아둔 것도 있는데, 프리랜서로 활동하면서 정기적인 돈을 꼭 모아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취업을 해야 하는 이유를 찾는게 어려운 것 같다.

각 소모임에서의 이야기들을 모아 아래와 같이 요약하고 연결하였습니다.

소모임 토의 전체 요약 정리

● [질문 1] “여러분, 잘 먹고 계신가요?”

- 꼭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편한 음식
 - 편의점 음식, 인스턴트 음식, 배달음식, 밀키트
- 경제 사정으로 식비 아끼기
 - 마트 마감세일 음식 사서 먹기
 - 햇반 등으로 대충 때우기
 - 지역 고유의 식자재, 직접 재배한 식자재 활용
- 먹고자 하는 음식들
 - 집밥, 엄마밥, 직접 한 요리, 도시락
 - 건강식, 비건음식

● [질문 2] “어디에서 누구랑 무엇을 하며 사시나요?”

- 무업상태의 마음
 - 일 이후의 번 아웃
 - 늦잠, 누워있기
 - 집에 주로 있음. 왕래가 줄어들고 혼자 지내게 됨. 우울함과 무기력함이 오기 쉬움
- 활동하기
 - 혼자 할 수 있는 활동들을 시작
 - 공부, 진로탐색, 자소서, 이력서, 면접, 자격증, 잡코리아 서치 등 취업 준비
 - 연애, 데이트, 집안일, 산책, 운동, 알바, 해수욕장 가기(바닷가)
 - 그림 그리기, 덕질, 책방, 도서관, 전시회, 박물관, 넷플릭스, 모바일 게임 등의 취미
- 커뮤니티 활동
 - 밖에서 친구 만나기, 집으로 친구 초대
 - 지역 커뮤니티 활동, 새로운 사람들 만나기, 온라인 화상 모임

- [질문 3] “돈벌이는 안돼서 쓸모 없다고 여겨질지 모르지만 재미있는 일, 가치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 무기력함 이겨내기
 - 하나둘셋을 세고 일어나거나 일을 시작하는 하나둘셋법칙
 - 밖에 나가기, 외부 일정 만들기
 - 음악 듣기, 산책, 조깅, 명상, 생각 정리하기
 - 조명 밝히기, 자전거 타기, 카페 나가 앉아 있기
 - 자신을 돌아보기
 - 산책하기, 생각하기
 - 필사, 문장 수집, 일기 등 글쓰기
 - 마음건강 관리
 - 재미있는 일, 하고 싶은 일, 만족하는 일, 아무 생각없이 할 수 있는 일 하기
 - 가치 있는 일
 - 자기계발과 도전
 - 어학 공부, 듣고 싶은 강좌 듣기, 코딩
 - 소셜벤처 공모전, 책모임 운영하기, 텀블벅 출판 기획
 -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안하던 짓 실험실
 - 수공예품 및 콘텐츠 생산
 - 다이어리 꾸미기, 동네 사진 찍기
 - 사람들에게 정보를 공유하는 블로그 하기, 유튜브 콘텐츠 제작
 - 개인 작품 전시, 굿즈 제작
 - 사회적 가치 실현
 - 공공장소 청소, 봉사활동
 -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기록하는 인터뷰 하기
 - 청년정책 거버넌스 참여

이처럼 무업청년들은 고립되어 있고 어려운 경제사정 속에서 원치 않는 식습관을 들이게 되기도 하지만, 그러한 조건에서도 식비를 아껴가며 건강한 음식을 먹고자 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고안하여 실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잘먹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업청년들은 무업상태에서 오는 외로움, 우울함, 무기력함으로부터 취약하지만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이어갑니다. 집에서 혼자 할 수 있는 일로부터 시작하여 밖으로 나가 함께 하는 일, 커뮤니티 활동으로 나아갑니다. 누구나와 같은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업청년들은 어려운 경제사정 속에서, 일을 구해야 하는 불안한 미래 상황에서 무기력함을 이겨내기 위한 수많은 활동을 벌여나갑니다. 그것은 특히 자신의 마음을 다독이는 일로부터 시작합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활력을 부여하며 다른 활동으로 나아갈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합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누군가로부터 쓸모없는 일로 여겨질지도 모르지만 재미있는 일, 하고 싶은 일, 만족하는 일을 시작합니다. 그 일들은 자신을 성장시키는 일이거나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새로운 도전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물품이나 예술작품, 혹은 콘텐츠를 생산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가치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이렇듯 무업청년들은 무업상태 속에서도 사회의 일원으로서 가치를 생산하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5. 시민 제안

참여자들은 소모임 토의를 진행한 후, 서로 이야기 나눈 내용들을 바탕으로 “팔도강산 백수로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이렇게 필요해요!”의 내용을 채우고자 빠띠 믹스 ‘[니트생활자] 팔도강산 백수들의 먹고사니즘에 관하여’ 그룹의 제안 게시판 게시물에 댓글로 각자의 제안들을 올렸습니다.

팔도강산 백수로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이렇게 필요해요!

- 제안배경
 - 팔도강산 백수들의 먹고사니즘에 관하여 공론장을 열고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각 **지역에서 무업기간에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 제안내용
 - 무업 기간에도 먹고 살아가는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존재합니다. 사회는 경제생활을 하지 않으면 하루 바빠 개선해줘야 할 잠재 일꾼으로 여기지만,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취업에 쓸모없을지 몰라도 **우리는 이미 다양한 방법으로 사회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일상에서 **쓸모없지만 재밌고 의미있는 것을 지속**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이어나가 보자구요!
 - 소모임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생각한 것들을 아래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 조기
 - 아무것도 안해도 **괜찮다**는 마음, 아무것도 아닌 것에서 아무거나도 찾아서 **입덕**하는 엉뚱함
- 명탕
 - 서로가 서로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해요.
- 이쁘로로
 - 팔도강산 백수로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연대”**가 필요해요! 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 또 같이 서로 공감** 하고 자극이 될 수도 있는 연대의 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
- 강단있는젤라비 (서울)
 -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는 **최소한의 돈**이 필요합니다.
 - 백수=할일없는 사람 이라는 **편견**을 없앨 필요가 있습니다.
 - 오늘과 같은 **자리**가 이런 편견을 없애기 좋은 듯 합니다.
 - 니트족들을 위한 **정기적 커뮤니티** 너무 좋아요!
- 송 (서울)
 - 요즘같은 시대에 직접 만나지않아도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필요해요!
- 움
 -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리요!
- 이루
 - 큰 기계 안의 톱니 바퀴가 되지 않아도, 그럭저럭 먹고 살 수 있다는 기대 혹은 열심히 일하면 **정당한 보상**을 받을 거라는 **희망**
- Benjamin
 - 팔도에 계신 모든 백수님들과 언제든지, 부담없이 **소통**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게시판이든 카페든)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
- 포도

- 시간 구매없이 가능하면 무료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약간의 소음이 허용되는 **공간!**
- 솔지
 - 오늘과 같은 어떻게, 무얼 하며 사는지 **공유하는 연대의 장과,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친근한 장**이 지속되었으면 합니다!
- sac (서울)
 - 서울을 포함한 다른 지역 전체에도 필요한 내용 같은데, **무업기간인 사람들을 지원하는 사업**, 빠띠 같이 **참여가능한 프로그램**을 **소셜네트워크**에 많이 포스팅 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수 있도록 알리면 좋겠어요. 아는 사람만이 아닌, 모두가 알수있게 많이 알려지면 좋겠습니다.
- 탕구 (서울)
 - 팔도강산 백수로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소통"**이 필요해요. 나와 나 자신과의 충분한 소통의 시간도 필요하고, 나와 다른 사람과의 소통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지숙
 - 잘 해나가고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말기!
- 알리올리오 (서울)
 - 오픈채팅방처럼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채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처럼 사는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힘이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
- 차차
 - 내가 누구인지 찾아가는 시간 속에서 죄책감 느끼지 말기! 돈벌이를 하지 않아도 괜찮은 하루였다고 스스로 생각하기!
- 쌀나무 (강원)
 - 서로의 삶을 **이야기**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종종 있으면 좋을것 같습니다.
- 뮈러비 (서울)
 - 백수로 잘 먹고 잘 살려면 건강한 정신이 필요해요! 백수로 계속 있다보면 내가 무쓸모한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부터 시작해서 온갖 부정적인 생각들이 들어오고, 결국 아무것도 하고싶지 않은 무의욕상태가 되더라고요. 내 **자존감**을 높이기 위한 것을 찾아요! 생각만 하기보단 몸을 움직이고, 정해진 시간에 무언가를 하는 루틴을 만들어요.
 - 혼자 하는 것보단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더욱 좋아요! 요즘엔 **온라인**으로 모임하기 어렵지 않은 시대이니깐요!
 - 되도록이면 아침일찍 일어나서 **무언가를 하는걸 추천**해요! 저는 집에서 잘 지내는 편이라 집을 꾸미거나 가구를 이동하는걸 좋아해요. 비록 작은 원룸에서 살고있지만, 집이 바뀌면 뭔가 다른 공간에 온 듯한 느낌이 들어요!
 - 밖에서 무언가 활동을 하고싶다 하신 분들이라면 동호회 **활동**도 괜찮은 것 같아요! 다른 지역은 모르겠지만 제가 사는 서울에는 무언가를 찾아보면 할게 많더라고요! 구청이나 동사무소, 아니면 동네 도서관에 올라오는 행사같은걸 잘 뒤적뒤적 거려보면 여러 무료 클래스들이 많더라고요! 따릉이도 타고 개천을 돌거나 시장에서 장도 봐오기도 해요!
- 민초 (서울)
 - 팔도강산 백수로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경제적 지원, 자기개발 프로그램**이 필요해요!
- 김대규
 - 혼자가 아니라는 것, **서로의 존재를 알아차릴 기회**가 필요합니다. 니트생활자와 파티 기대하겠습니다.
- 솔지
 - 백수에게 편안함이 필요하다! 백수라고 편하게 살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게 아닙니다. 나무라는 것 보다는 **응원과 지지**가 필요합니다~~!

- 레띠
 - (무료) 자기 개발 프로그램 & 정보를 나누기 위한 (무료) 커뮤니티
- 인피니티
 - 정말 시시콜콜한 고민을 나누어도 평가하지 않고 이야기할 수 있는 환경이 있는 커뮤니티가 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야기 듣는데 공감도 많이 되고 좋았어요. (새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모두 모여서 오늘 같은 공론장을 경험하고 커뮤니티에 들어오시는 그런 느낌이에요)

소모임 토의에서 나누었던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각자가 작성한 제안들의 키워드를 모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무업 청년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제안’ 종합 요약

- **자존감**
 - 괜찮다는 마음
 - 백수라는 편견의 소거
 - 정당한 보상을 받는 삶에 대한 희망의 회복
- **활동**
 - 무엇이든 일단 하라
 - 그 활동에 입덕하라
- **소통과 연결**
 - 함께하는 사람들의 소중함
 - 친근한 관계맺기
 - 서로간의 공감
 - 서로간의 도움과 연대
 - 정보의 공유
 - 정기적인 온라인 커뮤니티 모임
 - 온라인 커뮤니티 공간의 마련
- **정책 지원**
 - 활동의 거점 공간
 - 무업기간에 최소한의 생활을 위한 경제적 지원
 - 무업청년들이 참여하는 자기개발 프로그램들의 마련

제안들을 종합해 보면 무업청년들은 무업기간 동안 자존감을 유지하거나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토대입니다. 이를 위해서 무업기간에 할 수 있는 활동들을 일단 시작하고 지속하여 이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활동은 혼자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고 연결되어야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공감하고 돕고 공유하는 연대를 형성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기적인 모임이 필요하고, 코로나19상황인 만큼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공간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무업청년들을 위한 정책적 지원은 그들이 활동할 수 있는 거점 공간을 온/오프라인 차원에서 마련해주는 것, 그리고 그들이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하며 다음 스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사회안전망의 구축이 있을 것입니다. 실질적인 경제적인 지원부터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 다양한 방법들을 고민해봐야 할 것입니다.

6. 나가며

공론장 활동의 함의

- 이 공론장 활동의 결과는 무업청년들이 처한 문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하나의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
- 이 공론장 활동의 결과는 무업청년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을 벌여나가기 위한 토대로서의 의미를 지님
- 이 공론장 활동의 결과는 다음 공론장 활동 기획을 위한 사전 공론장 활동의 중간 결과 자료로 위치지을 수 있을 것
- 이 공론장 활동의 결과는 무업청년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제안을 만들어 가기 위한 하나의 기초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

나가는 글: ‘니트생활자’가 살펴본 팔도강산 백수들의 이야기

‘팔도강산 백수들의 먹고사니즘에 관하여’ 공론장은 백수, 청년니트, 무업청년, 팔도(지역), 먹고사니즘이라는 키워드로 무업청년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논의의 장이었고, 무엇보다 동료들을 만나는 장이었습니다.

이번 공론장을 기획하면서 사실 조금 고민이 되었어요. 팔도강산에 흩어져 있는 백수의 삶의 모습이 얼마나 다를지 또 지역이 가지는 특성이 백수의 삶에 얼마만큼 영향을 주는지 자세히 알지 못했거든요. 혹여나 이번 공론장이 도시와 비도시 지역간의 차이만 더 확인하게 되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혹은 결국 돈이 가장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도 많았고요.

하지만 팔도강산 청년들을 발제자로 섭외하고 두번의 사전 모임을 진행하면서 우리 안에는 아직도 ‘백수’에 대해 커커이 쌓인 편견이 있었다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청년들의 삶의 모습은 다채로웠고, 사는 곳이 어디든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할 수 있는 일, 가치있는 일을 찾아서 해 오고 있었어요. 단지 경제적인 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사회가 인정해주지 않았을 뿐.

전라도 대표 문어빵님이 “백수생활을 하며 사회와 동떨어진 느낌이 많이 들지만, 집 앞 풍경이 계절마다 바뀌는걸 지켜 보면서 ‘나도 자연의 일부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셨을 때, 그리고 강원도 대표 쌀나무님이 “백수기간 지역의 현책방을 자주 방문하게 되면서 자원의 순환 측면이나 지역적 사료들이 남아있는 보관소이기도 하기에 꼭 지켜져야 할 가치있는 곳”이라고 이야기하셨을 때, 무업기간이 누군가에게는 버려지는 시간처럼 보일수도 있겠지만 이 기간을 살아내는 청년들 개개인에게는 내적 성장의 시간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팔도강산 백수들의 먹고사니즘에 관하여’ 공론장을 통해 팔도강산의 청년들간의 연결과 연대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니트생활자’가 앞으로 해야 하는 역할과 방향에 대해 다시 짚어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